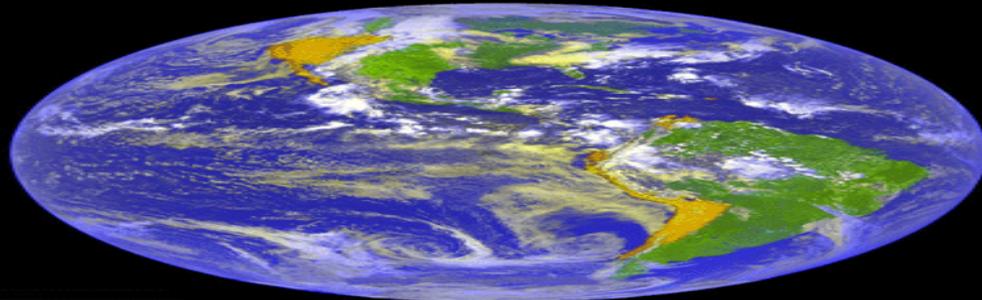


나고야의정서 각국 비준동향 및 발효전망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목 차

1. 나고야의정서 비준 동향
2. 나고야의정서 발효전망
3. 우리나라의 비준 필요성
4. 조치필요사항

1. 나고야의정서 비준 동향

-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일본 나고야)에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30)
- 현재 인도, 남아공 등 개도국 18개국* 비준 완료('2013.6월 현재), 20여 개 국이 비준 절차 중에 있음
 - ※ 비준국: 알바니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인도, 요르단, 라오스, 모리셔스,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파나마, 르완다, 세이셸, 남아공, 시리아, 몽골, 코모로스
- EU(27개국)은 이행입법을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서 심사 중으로 금년 중 입법완료 예상. '14년 상반기 회원국들의 비준 예상

2. 나고야의정서 발효전망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각국의 비준동향을 고려 시 제 2차 당사국 총회 ('14.10)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
 - ※ 발효요건 : 50개국이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촉구서한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상에게 발송(2013.4월, 135개국)
 - 유엔을 중심으로 '14년 상반기 발효에 적극 노력 중

⇒ **내년**도 개최 예정인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COP12) 이전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우리나라의 비준 필요성

- 우리나라는 ‘11.9월 서명하였으며, 비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검토됨(‘11.12, 가입타당성 연구)
 - 국내 법령 정비 가능성, 국내 과학기술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영향, 국제사회 기여 등을 고려
- 생물다양성총회 개최국가로서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
- 나고야 의정서가 내년 발효 시 **내년 평창총회**(COP12, ‘14.10.6~10.17)에서 **제 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도 개최되며, 우리나라에게 **의장국 역할**이 주어지므로 이를 위해서도 비준 필요

4. 조치필요사항

- 비준 및 협약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총회개최 90일전까지)
 - 비준서 기탁조건은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 완비와 비준 절차 완료 시
 - ※ 발효요건 :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국내이행 관련 법제 정비
 - (가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관련 절차 진행('13.6월~)

나고야의정서의비준절차 후비준서기탁은 '14.7월이전완료필요

EU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관련 동향

- ◆ EU의 의정서 이행입법 완료 및 의정서 비준은 '14년 상반기로 예상
 - 입법형식 :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발효 즉시 전 회원국에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 형식으로 입법
 - 법안명칭 : Regula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in the Union
- ◆ EU 회원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 이행입법이 승인(통과)후 EU-27개 회원국 별로 비준 진행 예정
 - EU는 산업계를 포함하여 의정서에 대한 찬성여론이 강하며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위해 동구권 등 영향권 국가들 설득 노력

EU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관련 동향

◆ 나고야의정서 서명 · 이행입법 추진일정

- ‘11. 6 : 나고야의정서 서명
- ‘11.10~12 : EU집행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public consultation)
- ‘12.10월 : 법안제출 (EU집행위 → EU의회 및 EU이사회)
 - 영향분석서도 함께 제출
- ‘13. 7월 : EU 의회 환경위원회 표결 (예정)
- ‘13.10월 : EU 본회의 표결 (예정)
- ‘13 하반기 : EU이사회 논의 및 의결 (예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명의 서한



THE SECRETARY-GENERAL

24 April 2013

Excellency,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as adopted in 2010, in response to the call from world leaders at the 2002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The Protocol creates greater legal certainty and transparency for both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It offers a pragmatic tool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viding for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ereby creating incentive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genetic resources.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was a historic breakthrough and a major succes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92 countries have signed the Protocol and 16 have already ratified it. Fifty ratifications are necessary for the Protocol to enter into force.

Given the valuable contribution the Protocol can mak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 would urge you to ratify the Nagoya Protocol at the earliest,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move on to the implementation phase.

A background fact sheet prepared by the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model formats for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accession are also enclosed for reference.

Please accept,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BAN KI-moon

Her Excellency
Ms. Park Geun 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명의 서한

◆ 서한내용

- 나고야 의정서 의의 및 비준현황 공유
 - 2010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2002, WSSD)에서의 권고로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
- 의정서의 채택은 생물자원 이용국과 제공 국에게 법적 투명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며,
- 생물유전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통하여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명의 서한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은 국제사회에서 역사적인 돌파구이자, 주요한 성과
 - 현재 92개국이 서명, 16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며,
 - 발효가 되기 위하여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임

■ 나고야 의정서 비준 촉구

– 나고야 의정서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실행 측면에 돌입할 수 있도록 **조속한 비준을 촉구**

※ 상기 서한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135개국에 송부됨



감사합니다.

